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3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40, 례 19:18)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co.kr

마태복음 강해

## 추수와 추수꾼 (마 9:27-38)

본문은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는 내용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롬 10:17). 본문의 소경들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36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사람들, 질병과 가난과 인생의 상처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 없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 1. 세상에는 추수할 것들이 많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37절)

관심이 없을 때는 잘 안 보였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여 구원해야 할 대상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 2.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세상에는 돈 버는다고, 자기 건강 챙기느라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교회에는 주님의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의 일꾼들은 항상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할 수밖에 없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3. 추수할 일꾼을 보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이 잘 맞는 동역자를 얻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38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우리들의 삶과 일터에 마음이 통하는 복음 사역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일꾼을 찾고 계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착하고 충성된 추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The Harvest and Its Workers (Matt. 9:27-38)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In the text it is written that a lot of sick and weak people heard that Jesus had healed the sick and the weak, and its rumor spread all over the land.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Romans 10:17). The blind men in the text heard the rumor of Jesus and through hearing the message he had faith.

“When he saw the crowds, he had compassion on them, because they were harassed and helpless,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v. 36).

The power of Jesus Christ starts to have an effect on those who are burdened, harassed and helpless. Also, on those who are sick with disease, in poverty, and emotional scars. However, we don't have compassion on people and feel sympathy for them from the heart. Because we do not have a heart of compassion for people like Jesus, we live our powerless and listless life. Therefore, we must pray to God to receive a mind to have compassion on people and feel sympathy for them.

### 1. The harvest is plentiful in the world

“Then, he said to his disciples,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workers are few” (v.37).

We cannot see anything with our eyes. We should see the world with Christ's heart: there are many people whom we should help in the world. It means that there are so many target people who will be saved by spreading God's love and the Gospel.

### 2.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workers are few

Even though there are a lot of busy people who earn money, keep their health, and take care of children, but there are a few busy people who carry out the work of Jesus Gospel.

Especially, I give thanks to many Christians who serve God by placing the first priority on the work of the Gospel in our church.

Nevertheless, the workers in our church are far from sufficient. That's why I feel very sorry to know that people have several responsib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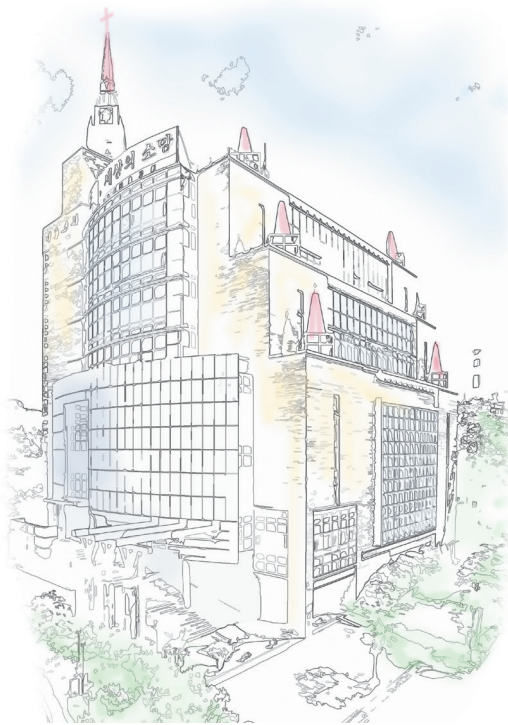
### 3. We must pray to God to send us harvest's workers

Nothing is more enjoyable than getting co-workers who are like-minded. Jesus says to us, “Ask the Lord of the harvest, to send out workers into his harvest field” (v. 38). When we pray like this, I believe that He allows us to work with people who share the same vision of spreading the Gospel. He has control over our co-workers relationships in our church, at our

work, and in our life.

My beloved Christians,

By praying to Jesus who is looking for workers now, “I am here. Send me! Send co-workers working together,”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a good and loyal harvest work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2013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일정확정

9월 2일(월)~11월 10일(주) / 10주간

서울교회 성도들과 이웃 주민들을 위한 2013년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일정이 확정되었다.

우리교회 열린 프로그램은 성도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통하여 신앙을 확립하고, 말씀이 왕성하여, 내적으로 복음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외적으로는 복음전파가 힘을 얻어, 서울교회 부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이웃주민들도 여가선용을 하며 깊이 있는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년 2차례 개강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기간은 9월 2일(월)~11월 10일(주)까지 10주간 계속될 예정이다.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과목 이상씩 수강하여 말씀에 든든한 기반을 둔 성도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한다. 각 과정별 강의 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수강료 : 과목당 10,000 원)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발립보서 (10주)	월, 오전 10:00-11:00	정수길 목사	602호
말라기 (10주)	금, 오전 6:00-7:00	서명철 목사	602호
성경통독반 (10주)	목, 오전 10:30-12:00	유문건 목사	602호
교사양성반 (10주)	주일, 오후 3:20-4:30	교역자 전체	606호
교구일꾼 양성반 (10주)	주일, 오후 3:20-4:20	교역자 전체	607호
주부대학 (10주)	화, 오전 10:00-오후 12:00	한상은 목사	802호
살롱경로대학 (10주)	목, 오전 10:00-오후 1:30	서명철 목사	101호
전도학교 (12주)	주일, 오후 2:00-오후 3:50	배경애 전도사	701호

## 제4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일정 확정

9월 2일(월)~11월 4일(월) / 10주간

제4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는 '개혁교회 비전 수립과 목회전략'을 주제로 9월 2일(월)부터 11월 4일(월)까지 10주간 열린다.

1교시는 김정우 교수(총신대 구약학)의 읍기 강해를, 2교시는 '개혁교회 비전 수립과 목회전략'이라는 주제에 맞게 각 시간마다 강사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한다. 성도들의 많은 기대 바란다.

주	월일	1교시	2교시	강사
1	9월 2일	읍기 강해  김정우 교수 (총신대 구약학)	개혁교회의 예배와 설교	박노철 목사(서울교회)
2	9월 9일		개혁교회의 목회 전략	리용주 목사(안산 보리매교회)
3	9월 16일		개혁교회와 전도 / 선교	이동석 목사(목동 능력성결교회)
4	9월 23일		개혁교회와 장년 교육	박찬민 목사(양주 명성교회)
5	9월 30일		개혁교회의 비전 수립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6	10월 7일		개혁교회와 교회학교	김인환 목사(광교 지구촌교회)
7	10월 14일		개혁교회와 리더십 개발	윤마태 목사(천안 서부교회)
8	10월 21일		개혁교회와 전인치유목회	김예식 목사(예심교회)
9	10월 28일		개혁교회와 지역공동체	이철호 목사(부평 강성교회)
10	11월 4일		가정교회를 통한 교회개혁	김형국 목사(나들목교회)

## 직분자필수반 수료자 명단

2013년 5월~7월 수료자

서울교회는 2013년부터 새가족부(부장 하인선장로) 내에 "직분자필수반"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직분자가 가져야 할 성경적 가치관과 봉사자세를 비롯하여 서울교회의 조직 및 부서의 기능 등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봉사부서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 교육은 4주 과정으로 매 주일 2부 예배 후 602호에서 유문건목사님(새가족부 담당)의 은혜로

운 강의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강대상은 새가족 뿐만 아니라 기존 성도도 수강할 수 있다. 특히 교회에서는 금년부터 서리집사 임명시 본 과정의 수료를 필수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니 각 교구담당자는 임명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본 과정을 필히 수강하도록 안내하기 바란다.

아래는 지난 3개월간 본 과정의 수료자 명단이다.

- 1교구 : 박선희, 신지원, 최희석, 홍경화 / 2교구 : 송미애 / 5교구 : 고상준, 이영주 / 12교구 : 정임숙
- 13교구 : 강정화, 김정아, 김현아, 민의량, 유연우, 육순모, 이시우, 장현천, 전유연, 정혜은
- 14교구 : 구전서, 유재형 / 15교구 : 이소은, 전행욱
- 16교구 : 김인경, 김현경, 김용균, 박재준, 신석진, 안미희, 양혜경, 오인택, 유귀숙, 윤봉희, 이명채, 정계역

(총 34명)

## 신앙강좌2부 개강

오늘 2부예배 후, 701호

깊이 있는 말씀과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지향하는 신앙강좌2부에서 하반기 강좌를 오늘부터 시작한다. 관심있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일시 : 8월4일 / • 강사 : 원종천 목사
- 시간 및 장소 : 2부 예배후 701호
- 대상 : 성경공부에 열정을 가진 모든 분!



## 여름 수련회

부서	일시	장소	주제
청년2부	8.15(목)~17(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나라
청년3부	8.14(수)~15(목)	화방교회	하나님의 나라
신혼가정부	8.23(금)~24(토)	아가페타운	부부, 평생의 친구

## 2013 카자흐스탄 비전트립 파송식



장석남 목사(선교위원회 지도)로부터 단기선교사 파송장을 받는 이준호 집사(2013카자흐스탄 비전트립단장)



이영기 장로(선교위원장의 비전트립 파송 결과보고)





# 서울교회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

바쁜 나날을 보내던 서울교회를 떠나 목회학 박사학위를 위한 논문을 쓰러 이곳 시카고에 온지도 벌써 열흘이 다 되어갑니다. 오자마자 하루에 4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12시간 이상씩 논문에 집중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로 논문 프로포절(Proposal)이 잘 통과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는 한 줄도 쓸 수 없었던 프로포절이 이곳에 와서 집중을 하니 일주일 만에 끝나 버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을 쓰면 내년 봄에는 구두심사(oral defence)까지 다 마치고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떠나 이곳에 오니까 시간차도 있고, 긴장이 풀렸는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권사님의 역할이 컸습니다. 제가 떠나오던 월요일 새벽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오전 7시에 교역자 회의를 인도하려고 사택에서 나오는데 그 권사님이 사택 1층 의자에 앉

아게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오셨냐고 여쭙봤더니, “목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사택 문을 두드릴 자신은 없고, 그래서 경비원에게 무엇을 맡기고 가려고 했지만 경비원도 좋을지 몰라 그곳에 마냥 앉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서, “어떻게 목사님이 이 시간에 나오시냐?”고 되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미국에서 공부하시다가 배고프실 때 뭐라도 사 드시라”고 하시면서 제 손에 봉투를 하나 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조그만 우산을 쓰시고 폭우 속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공부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자주 그 권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시간을 내서 이곳까지 왔는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으며 이곳까지 왔는데, 프로포절 다 마칠 때까지는 4시간 이상 자지 말자.”는 각오와 함께 결국 프로포절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랑과 기도는 그 권사님 한 분의 것만은 아닌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성도님들이 부족한 종의 끝내지 못한 공부 잘 마치고 오라고 큰 사랑과 기도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모든 서울교회 성도님들을 기도 속에서 생각하다가 눈가에 맺힌 이슬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자매들이여,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서울교회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출타의 목적은 논문 작성인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를 생각하며 더욱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먼 곳에서 서울교회를 바라보며 목회 비전을 위한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때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노철 목사 올림



양인수 집사 (2013 바자위원장)

물은 생명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가뭄이 심각한 아프리카 지역과 오염이 심각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지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깨끗한 물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이 시간에도 수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매일 서너 시간을 왕복하지만, 겨우 구한 그 물 또한 심하게 오염되어 온갖 수인성 질환과 전염병에 시달리다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무 큰 은혜를 받아 깨끗하게 정수된 수도물을 마음껏 사용하는 좋은 환경에서 살다보니 이해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서는 수도물조차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고 생수를 사서 마시게 하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지금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막 9:41).

서울교회는 9월 12일과 13일 양일간 “2013 사랑의 바자회”를 갖기에 앞서 ‘생명의 우물파기’ 모금운동을 오늘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 실시합니다.

오염된 물로 인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웃의 안타

까운 모습을 외면하지 마시고, 생명을 살린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에는 우리교회 청소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도 주일학교 차원에서 동참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일을 실천할 것입니다.

우물 하나를 시공하는데 적게는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며, 금년에는 10개의 우물을 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모여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생명을 살리고자 모금함에 넣어주시는 100원의 정성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모두 주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을 조금씩이나마 나누는 ‘생명의 우물파기’ 모금에 가까이 참여하여 사랑과 행복 나눔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 그 날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을 모릅니다  
 그 날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 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결정권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그 날이 오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무릎꿇고 기도합니다  
 그 날이 오게, 그 날이 있게 해달라고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고통이 끝나는 날입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는 날입니다  
 슬픔과 질병과 가난이 해결되는 날입니다  
 죄가 용서받는 날이고 성령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케 되는 날입니다  
 만족함을 누리는 날입니다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날입니다  
 그 날이 오면  
 나는 춤추고 노래하며 기뻐 날뛸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날이 올 것임을 확실히 믿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광신 원로 장로**

## 주일 주·정차 단속 강화 성도들의 주의 필요

강남구청으로부터 최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 주일 주·정차 순찰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한다는 통보가 왔다.

성도들은 구민회관 지하주차장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일 주·정차 단속이 유보 되어 있는 삼성로 주변 주·정차시 반드시 주차위원들의 안내에 따라 주·정차하고, 버스정류장 주차, 인도 위 주차, 횡단보도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덕이 되고 모범이 되는 주일 주·정차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20사단 진중세례식

비전2020운동본부(부장 : 이갑진 장로)는 8월 10일(토) 오후 2시 30분에 20사단 진중세례식을 갖는다. 세례예상 인원은 220여명 정도이다.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한다.

## 교역자 휴가

- 황광 목사 8월6일(화)-8일(목), 20일(화)-22일(목)
- 대행: 8월6일(화) 장석남 목사,  
8월7일(수)-8일(목), 20일(화)-22일(목)  
유문건 목사

##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5일(월)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공동회장단 모임을 소집한다.
- 전사회: 4교구 유기찬 집사, 인천 골목사진 기획전시전, 7월30일-8월11일, 인천한중문화원(Tel.032-760-7860)
- 주간식당봉사 : 리브가전도회(8.4) 스테반회(8.11)
- 금주의 식사 : 교회제공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담임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무더운 계절에 건강하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2. 카자흐스탄 비전트립팀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미르교회를 통해서 타라즈의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3. 20사단 진중세례식을 통해서 군복음화와 민족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 어린이찬양예배 달란트시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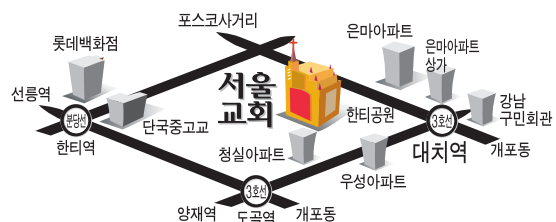


사진 : 오윤걸 집사 (어린이찬양예배)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웨스트민스터 홀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요예배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배	오전 11시	
	II 부 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